

청약통장 月납입 인정액 10만→25만원...41년 만에 바뀐다

올 9월부터 청약부금·예금·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열어줘 공공분양주택 '뉴홈' 나눔형 5년 거주했다면 개인 간 거래 가능 지자체에 저출생·고령화 대응 기관추천 특공 물량 배정도 허용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지난 1982년 이후 처음으로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시세의 70%에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나눔형의 경우 최소 거주 의무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집을 팔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만이다.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을 인정 받는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 수준이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올해 9월부터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을 상향할 계획이다.

월납입 인정액을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매월 25만원을 청약통장에 저축할 경우 소득공제를 30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올해부터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무주택 가구주이고,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때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청약통장 유형은 모두 4개다.
청약부금으로는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으로는 민영주택, 청약저축으로는 공공주택에 청

약할 수 있다.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되면서 세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됐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청약부금(14만6768좌)·청약예금(90만3579좌)·청약저축(34만9055좌) 등 총 140만좌가 남아있다.
이는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2696만좌)의 5.2%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 청약 당첨을 위해선 납입 횟수가 중요한데,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을 20년간 부은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공공

주택 청약을 넣을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1회차로 횟수를 센다. 주택종합청약통장에 꾸준히 저축한 1순위 청약 신청자와의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소득 요건 등이 부합하면 통장 전환 때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은 이점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특공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LH에만 팔 수 있도록 한 '나눔형' 뉴홈은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에는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를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전남본부 “업무 중심은 고객”... 권익 보호 다짐

소비자 보호 실천 결의대회 금융사기·자금세탁 근절 앞장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택)는 13일 전남본부 대강당에서 전남 144개 농협협 직원과 함께 '소비자 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참석자들은 고객 중심의 업무를 되새기고, 양질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민원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기로 다짐했다. 또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불법 자금세탁행위를 근절하는 등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앞장서기로 했다.
전남본부는 매년 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지난 4월



월야농협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가장한 금융사기에 속아 5000만원을 인출하려던 고객의 피해를 막아, 월야농협 직원이 합평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기도 했다.
박종택 본부장은 “이번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계기로 농협 임직원은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농업인과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전남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집값 양극화...광주 아파트 가격 6주 연속 하락

전남도 3주 연속 하락 지속

광주 아파트매매가격이 6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2주(6월 10일 기준) 광주의 아파트매매가격은 전(前)주 대비 0.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5월 1주부터 이주까지 6주 연속 매매가격이 감소했다.
전남도 3주 연속 하락했는데, 이주 전주 대비 0.0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광주구가 -0.9% 기록하면서 가장 많이 감소했고, 남구(-0.07%), 서구(-0.05%), 북구

(-0.02%), 동구(-0.01%)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광주의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은 보합세(0.00%)를 기록했다.
반면, 수도권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0.05%의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 안에서도 특히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폭이 지난주 0.09% 이번 주 0.10%로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1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상승 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LH 재능모아봉사단, 공예·문화프로그램 시행

선예학교 학생 대상 재능기부

LH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정수미)는 'LH 재능모아봉사단'이 13일 선운2지구 공립특수학교인 선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사진〉
재능모아 봉사단은 임대주택 입주민이 LH 작은도서관에서 재능을 기부하는 봉사단체로, 지난달 출범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지역 사회복지기관을 찾아가고 있다.
LH 작은도서관은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강좌, 교류행사,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봉사단은 '손끝에서 피어나는 작은 행복'을 주제로 선예학교 학생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주요 조사해, '스칸디아모스' 공예체험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12회에 걸쳐 시행하기로 했다.
정수미 LH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이번 LH 재



능모아봉사단의 재능기부 활동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재능나눔문화가 널리 확산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식품 수출확대 방안 논의...aT 광주전남본부, 혁신자문위원회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상반기 지역혁신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위원회에는 서동순 전남도 농수산수출팀장, 김두운 전남대 식품공학과 교수, 국광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장 등 7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해, 지역 농·어가 소득 증진을 위한 농식품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이 주산지인 주력 수출품목 김, 전복 등 수산식품 및 유자차 등에 대한 수출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꾀하고, 각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마케팅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통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서병교 본부장은 “이번 지역혁신자문위원회에 참여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겠다”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들을 주요업무 추진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